



나 하나 버린다면 모든 게 불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집착을 벗어나는 길은

문) 모든 고의 원인이 집착이라 한다면 그 집착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지요.

답) 우리는 모두 일체가 공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산다고 하고 내가 봤다고 하고 내가 들었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해서 망했다고 하고 모두, 만남도 그렇고 가고 옴도 그렇고 모두 내가 했다는 생각에서 잠재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겹겹이 이렇게 착이 누적된다 이거죠. 쌓인다. 그래서 그릇이 넘치도록 그릇이 비질 않는다. 유전성이라든가 업보성 인과성 영계성, 이 모든 것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착이 없다면 그냥 다 벗어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겹겹이 착이 있는데,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이 겹겹이 쌓이고 쌓이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했다는 걸, '내가 공했다. 내가 힘이 없구나. 힘이 없이 그냥 날아다니듯 그냥 살고 있구나. 사는 사이 없이 살고 하는 사이 없이 하고 갖는 사이 없이 갖고, 모든 게 이렇구나.' 그런 걸 아신다면, 나 하나 버린다면 모든 게 불을 데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의 내면 속에 다보탑이라는 그 한 줄의 자리, 바로 움죽거리지 않는 자불이 계십니다. 여러분 몸이 바로 법당이 되고 그 법당 안에는 다보탑 위에 자불이 계십니다. 아미타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태양과 같고, 즉 말하자면 에너지 창고와 같고 별빛 같은 겁니다. 모두 여러분을 온화하게 안 해 주면은 생물체가 살 수가 없어요. 물과 공기와 흙과 모든 게 겹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방편으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미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글자를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참 무지하고 어리석고 모르고 그렇더라도 이렇게 하자 그러고선 그냥 그냥 탐탐탐탐 사세요. 도가 별난 게 도가 아니라 탐탐탐탐 사는 게, 그냥 떠나는 생각, 질다는 생각 뭐, 좋은 자리다 이런 것도 아닌 그 자리, 그냥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그냥 내 앞에 걱정거리가 닥쳐오게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사람이 살기가 쉬운데, 나 하나 버리면 아무것도 불을 데 없는데, 버린

다는 생각이 없이 버리면은 너무나 좋은 것을, 나 하나 버린다면 일체가 다 구성해서 같이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같이 화목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이견 이거고 이견 이거고, 내가 한다고 하고 내가 자만을 부리고, 내가 잘 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따져서 시비를 오게 만드느냐는 얘기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아무리 이해도 약한 것을 약하다고 '나는 약한 일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해 보십시오. 그건 꼭 약한 일을 하고야 맙니다. '네가 얼마나 선한가 보자.'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하더라도 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약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다. 이

건 둘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 결정하는 그 마음이 진짜 자불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벌써 99%가 부처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면 말입니다. 이 공한 도리와 내가 없는 도리와 내가 한다는 뭇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살 것을... 왜 편리하냐. 금방 구정물이 막 들어오는데 저 구정물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큰일나겠다 이렇게 한다면 금방 맑은 물로 화하게 만들어서 써라 이런 겁니다. 일체를 다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나는 항상 내 생각이 부처와 둘 아니게 항상 같이 하게 되

는 것입니다.

어찌 나고 죽음이 공하다 하는 것인지요

문) 저는 아직까지도 죽음이라는 존재가 무섭고 두렵기만 한데 어찌 나고 죽음이 공하다 하는 것인지요.

답) 그게 본래 전부 공한 자리예요. 본래 비어 있는 자리인데, 본래 비어 있는 자리라는 말조차도 없는 건데, 이게 서로가 공한 줄을 알게 만들려니와 이게 말, 대화가 필요하고 방편도 필요하고 그런 거지, 무슨 공한 자리다 공한 자리가 아니다 하고선 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공한 자리를 공한 자리로 알지 못하

고 내가 나라고 하고, 이 환상을 보고, 주인은 주인대로 모르고 못 보고 내 것 네 것 하고선 서로 이리나까, 보다 못해서 부처님들이 나오신 거예요. 싸움을 말리려면 어른이 애 싸움에 나오듯이 말합니다. "야, 너도 옳다. 너도 옳으니깐 고만 두자. 너도 옳으니깐 고만 두자." 이러곤 싸움 말리듯이 말이예요. 그러곤 나중에는 "아눔아! 네가 있으니깐 싸웠지, 딴 놈이 싸운 게 아니지 않느냐? 싸 안 하는 것도 네놈이 있으니깐 싸움을 안 했지, 아눔아!" 하고서 그렇게 일러 줬다 이겁니다.

저 텔레비전을 보면 어떤 사람을 그려 가지고 영화를 지금 하는데, 아주 그거 어린애든 어른이든 그냥 아슬아슬한 데 가서 이렇게 섰다고요. 그냥 막 올라가고 저저 아슬아슬하니 떨어져서 죽겠네 해도, 떨어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죽는 게 아니라, 그건 영화의 어떠한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떨어져도 우리가 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실감 있게 볼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아가는 이 형체가 바로 그런 셈이나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도 만약 깨친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죽는 게 아니니까. 진짜가, 그 실상이 아니거든요, 그게 떨어져 죽는 건 그림자지 그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아등바등할 게 없다 이겁니다.

이 도리를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 모든 걸 붙잡고 욕심이나 어떤 망상이나 그 이상, 그런 모든 거를 가지고 얽매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 죽을까 봐 그렇게 찢찢찢 찢느냐 이겁니다. 그건 겁때인데, 천만 번 육신이 떨어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죽는 바는 없는 겁니다. 본래 산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고, 죽을 바도 없는 겁니다.

여유 있게 마음 쓰는 게 쉽지 않아요

문) 저는 중국에서 좀 크게 사업을 하다가 믿었던 사람에게 회사를 다 뺏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갈 염두가 나지 않았는데 큰스님께서는 도둑놈이 들어와도 "가져갈 것도 별로 없지만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라." 또 한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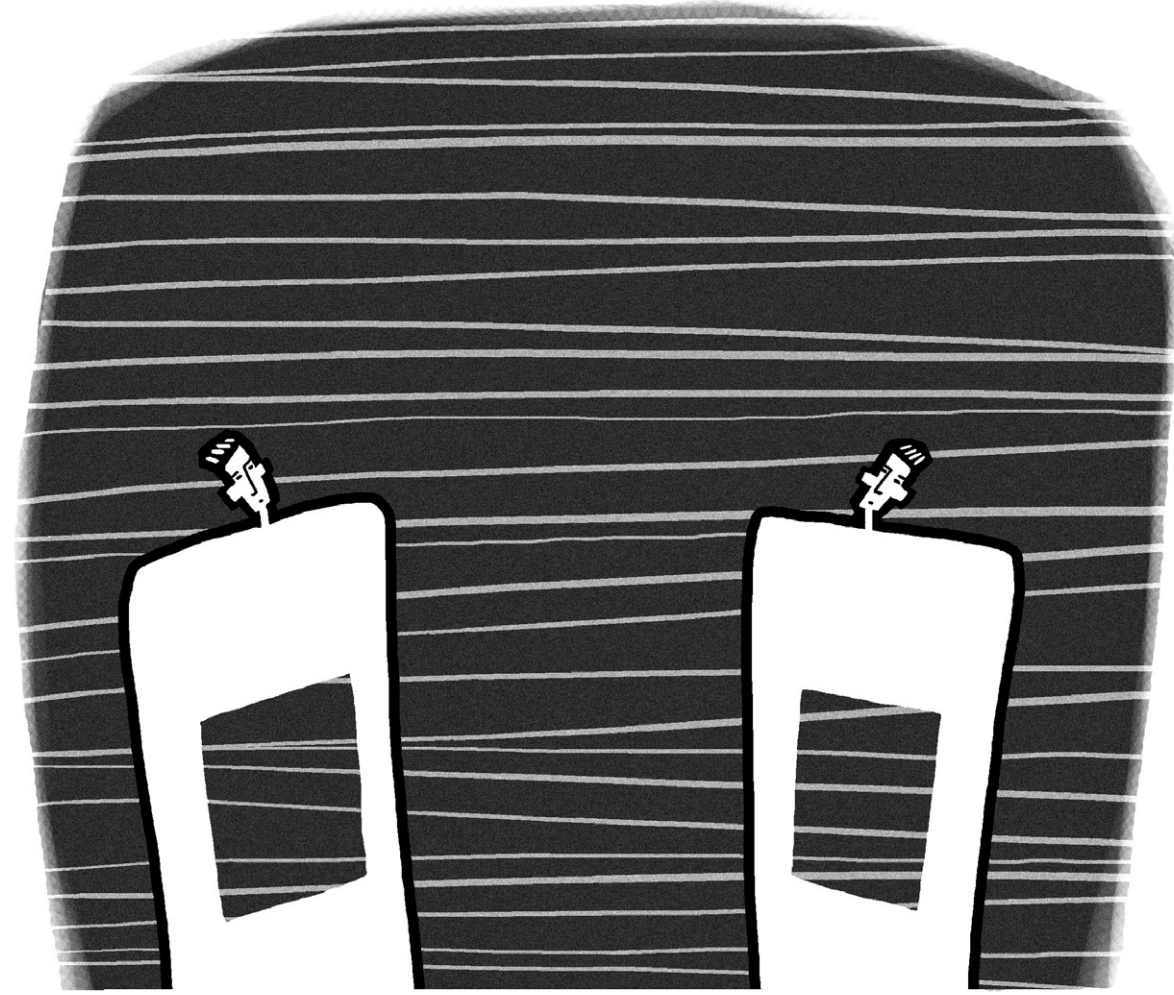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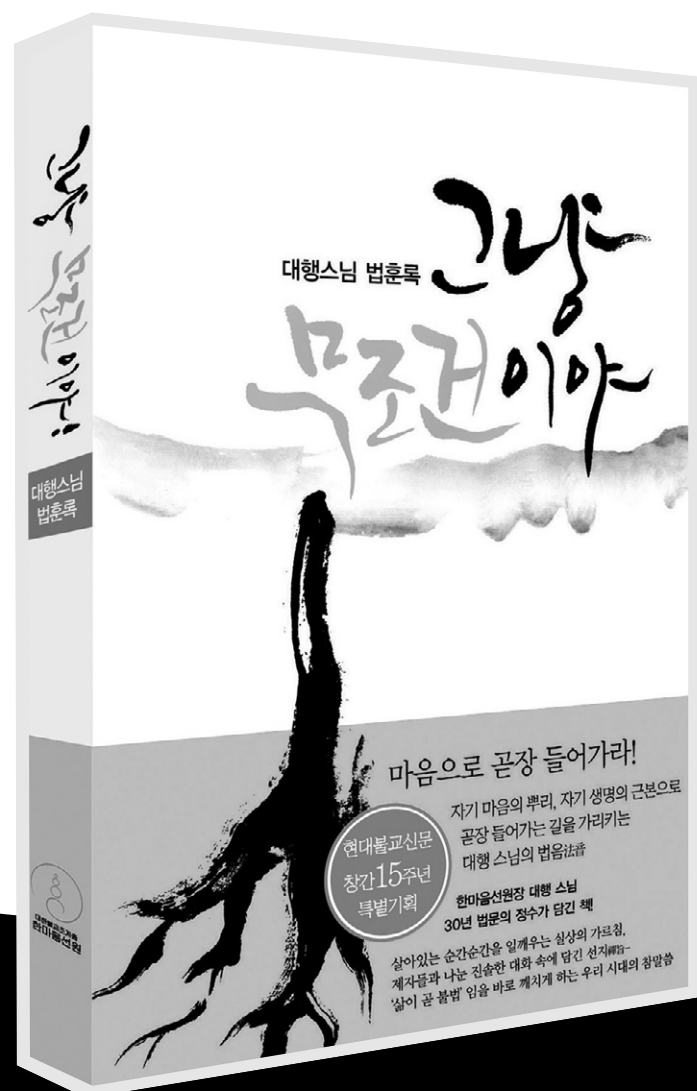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구정물이 들어오면 금방 새 물로 화하게 만들어서 써라

29면에서 계속

걸음 더 나아가서, 뭔가 좀 갖다 주면서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 가져가시오.”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일반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여유 있게 마음을 쓰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 그 오죽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그 오죽해서 왔겠느냐. 그걸 짜증내지 말고 주어야. 주되 줬다는 생각조차 하지 마라. 너로 바뀌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그렇게 없을 때에 그건 말이 그렇지 그 도리를 모르면은 자연적 마음이 가난해지고 공색하게 되니까요. 그럼 행동도 공색하게 해요.

그래서 내 집이 눈 깜짝할 새에 다 달아나갔다 하더라도 눈 깜짝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 달아나갔어도 눈을 깜짝 안 하면은 그것이 달아나간 게 아니라 되돌아서 나부면서 또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애원하게 하고 원망하고 그냥 저저 하면은, 그 돈이 만약에 사람이라면요, 나갔다 ‘아이, 저 집은 저력하기 때문에 아이 귀찮아. 저 집 들어가면 아주 귀찮아서 죽겠어. 그냥 붙들어 매 놓고는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귀찮아서 죽겠어. 난 안 들어가, 그 집에.’ 그리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걸 아주 허심탄회하게 그냥, ‘나가겠으면 나가고 들어오겠으면 들어오고 마음대로 해라. 에이, 나가게 되니까 너 나가라.’ 하고선 ‘나가겠으면 나가라.’ 이렇게 탁 띄어 놓으면은, 그 돈이 사람이라면 나가서도 그냥 그 집 생각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그 집에선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그냥 여여하게 지냈는데 이게 나가다 보니까는 아주 공색하고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서 다니다가 이 집에 도로 들어옵니다. 사람이려면, 비유해서 얘 겁니다. 돈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알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지혜가 넓고 풍족해지고 마음이 그렇게 여여해질 수가 없으니 어찌 가난하랴. 죽을 먹은들 어찌 가난하랴 이겁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한 애착, 자식에 대한 애착, 그것이 아주 제일 커터군요. 내가 감지할 때, 그래서 상원사 지을 때 “야 오천만 원 있으면 천만 원씩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테니까.” 그랬습니다. 왜냐? “당신네들이 와서 덕을 빌고 쓰레기를 차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오천만 원 있으면 천만 원은 가져와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자라면 살던 사람은 가난한 도리를 모릅니다. 그 돈을 다 내 버리고 다 망쳐 버리고 난 뒤에야 자기 정신이 변덕 나는 거죠. 그래서 몽땅 파서, 파서 버려라! 버려라! 이렇다가 어느 사람은 그냥 막 갖다가 그냥 버렸죠. 버리고서 난 뒤에 다시 버림 없이 버렸고 또

오는 것은 ‘내가 가져야지.’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알뜰하게 그 재산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집 하나 지읍시다. 우리 병원 하나 지읍시다.” 이러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만약에 오백만 원짜리 집이 있다면은 백만 원이라도 내놔서 이거는 짓게 되면은 그거는 거기서 또 나가게 되죠. 오백만 원짜리 집 짓고 있다가 백만 원 내놓으면은 사백만 원짜리 전세입니다. 그런데 그 전세가 나중에는 사천만 원짜리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모릅니다. 전체 몰라요. 그저 붙들고 내놓질 않기 때문에. 아까 내가 여복하면 그 돈을 사람으로 비유했겠습니까. 사람이 하도 붙들고 놓

랭인지 말입니다. 그냥 붙들고 놓질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자 대로 내려갔습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살다가 아들이 품쪽을 못했으니까 손자 대로 내려갔어요. 아버지도 죽고 인제 할아버지도 죽고 손자 대로 내려가서는 그냥 몰락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해 가지고도 저, 우산 고치는 거 있죠? 그거 역지로 못합니다. “우산 고치시오!”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뭘이냐? 부모가 그렇게 해 놓은 그 업이 내려가면서 그렇게 연결돼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러한다고 그게 꼭 붙들려서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 걱정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녁에 죽을 먹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걱정하지 않는다면 온다 이겁니다. 와요. 근데 그

활짝 웃고 살라 하시는데

문) 스님께서는 활짝 웃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데 제 생각에 그냥 웃다 보면 왠지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싫거든요. 그래도 웃고 살아야 하는 건지요?

답) 무심으로 그냥 덮어놓고 무슨 생각 없이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아유, 내가 이거 웃으면 이게 좀 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 거고 좀 이상스런 사람으로 보일 거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좀 상태가 끈덕지지 못한 그런 상태로 된다.’ 이런 것도 되지만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고 다 놓고 무심으로 웃으면 그냥 다 웃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 팔의 나무들도 다 ‘같이 웃어줘서 참 좋아요.’ 그리고 서로 나무들도 같이 웃는단 얘깁니다. 지나가던

가물치를 아니, 가물치라는 이름을 고아서 드리 고서 스님, 인도환생으로 꼭 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웃기는 거죠.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웃지 않을 수가 없단 얘깁니다.

길을 가다가도 만약에 조그만 나무가 섰다가 금방 토끼가 돼서 강충강충 뛰면서 웃자락을 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또 돌아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 덮어놓고 웃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 하나하나가 공생, 고 순순간간 공생이 되고 공체가 되고 비록 볼 때는 토끼지만 모습은 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체가 되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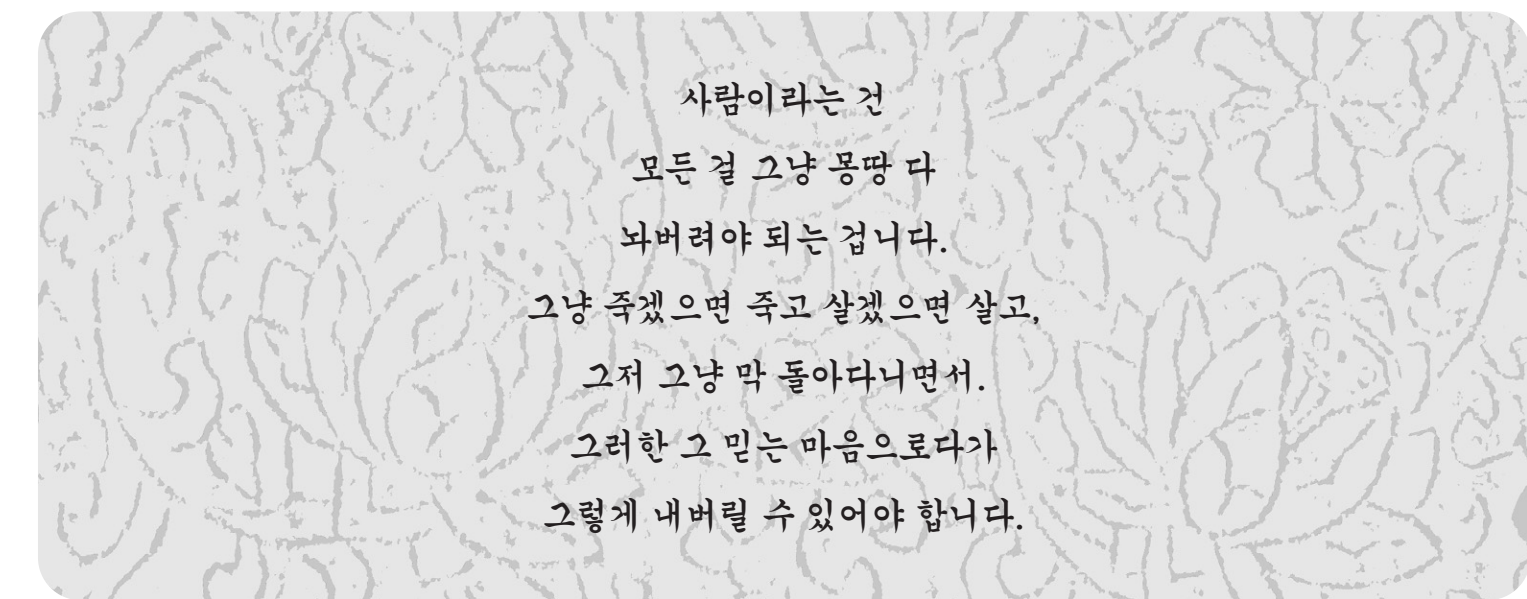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그냥 웃지 않을 때 웃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웃지 않을 때에 이쪽에서 웃으면 상대방이 웃지 않을 건데도 빗맞이 웃게 돼요. 그냥 덮어놓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쪽 사람이 좀 속으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있는데 저쪽 사람이 참 깔깔 웃고 “아이, 뭐 생각을 그렇게 하소?” 하고 웃을 때에 그냥 빗맞이 웃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웃어지죠. 웃어지면은 그만큼 속이 티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웃지 않으면서도 웃고 또 울지 않으면서도 울고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는데

문) 여자로서는 성불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생애는 남자로 태어나기를 발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행 스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받았어도 도를 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여자는 깨달을 수가 없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당시에 여자라는 사람들이, 궁중에서 놀던 사람들이 인제 오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나중에 이것을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바꾸어도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좁은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늘이 종자라면은 땅은 그 종자를 기르는 모든 산하대지가 되는데 그 산하대지를 버리고 어떻게 종자를 기릅니까.

생각을 하면은 모두가 돌이 아니게 돌아가는 건데, 이 세상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작다면 아주 작고 크다면 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마음들을 그렇게 먹으니 언제 자기 몸을 털고 일어 서겠습니까. 모든 걸 포괄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자기가 그 속에서 훨훨 털고 일어난다면 자기도 없고 모두가 없죠. 없는 그 가운데서 여여하게, 모두가 그냥 자유스럽게 배출할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고 모두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덴 여자 남자도 없고 가난과 부자도 없고 모든 게 높고 높고 없고 모두 그렇다고 봅니다.



질 않기 때문에, 왜 이런 게 있죠.

사회에서도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그 여러 해를 그냥,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권태가 나죠. 권태가 납니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합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리모도 가 보고 저리모도 가 보고 이럴 때 비로소 그 좋은 직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권태가 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은 그 돈이 지겨워서도 나갑니다. 반드시 그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수차에 그건 경험해 본 얘기고,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그 마음을 내서 사심 없이 원손이 하는 거 바른손이 모르게끔 시주해라.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무한량 돌아다니다가 이자가 불고, 달라 이자가 불고 그래 가지곤 너희 집으로 도로 찾아간다.” 그러기도 합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예전에 어느 사람이 동네에서 전부 그 땅 아니던 땅도 다닐 수가 없으리만큼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냐 그냥 노

생각을 그렇게 놓질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 천만 원 아니라 이천만 원이 생긴다 하는 거를 놓쳤다 하더라도 애원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또 찾아가지도 말고, 오는 것 막지도 말고 가는 것 잡지도 말라 이겁니다.

아예 그냥, 그냥 놔 버려라. 그래야 그 도리를 알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걸 붙들고 늘어지고 그냥 모든 거를 다, 이 몸 아픈 것도 그렇고 애착을 두고 그냥 그냥 ‘아이, 내가 이게 이렇게 아픈데 내가 설법을 어떻게 들어? 아이, 내가 저기 드러누워야 좀 낫겠지.’ 그까짓 몸뚱이가 뭐기에, 항상. 그렇게 야기니까, ‘아이, 난 내가 야기니까 더 붙어 있겠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병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모든 걸 몽땅 그냥 다 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죽겠으면 죽고 살겠으면 살고, 그저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그 믿는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름도 웃고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모여서 나와 나 공부하는 데에 전부 도와지는 형상이 된다 말이지요. 남이 미쳤다고 하든 말든 그것이 하등 상관이 없어요. 미쳤다고 한다면 남을 해롭게 하고 이러는 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 마음공부를 하면 나무가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꽃이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지나가다 흙이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돌이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우스운 소리를 들으면 웃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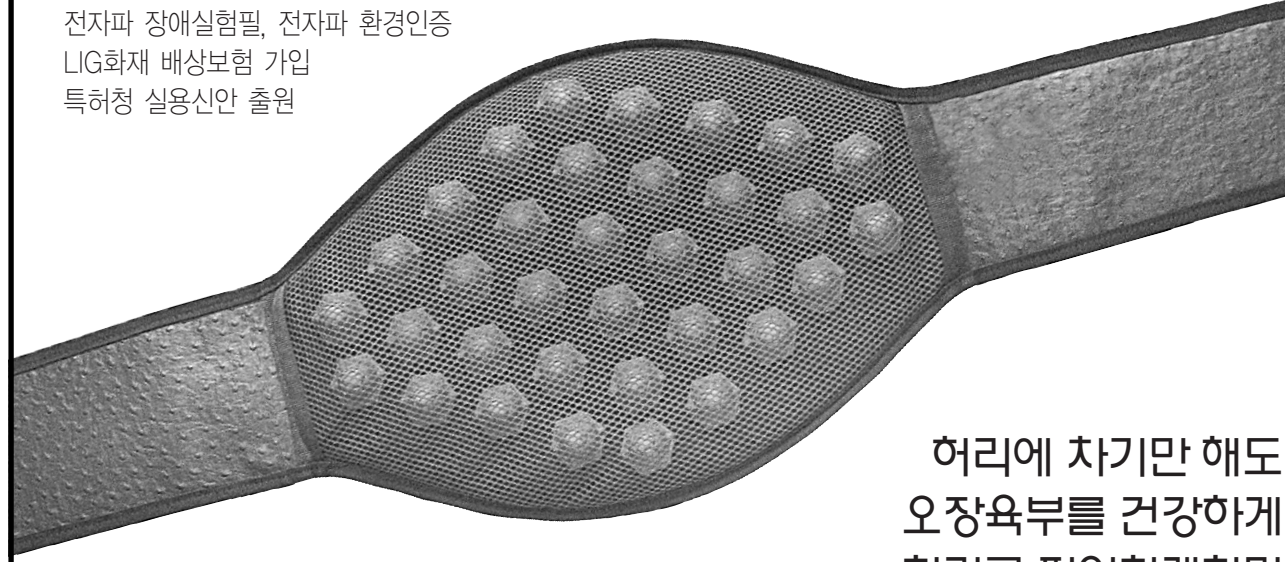
어느 누가가 말합니다, 임신을 해서 배는 부른데 임맛이 없다고 살아 있는 가물치를 사다가 솥에다 넣고 요리를 할 양으로 그러는데 가물치가 하는 소리가 “스님, 나 이렇게 이 물에 들어가도 들어간 사이가 없는데 웃지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고 들어간 사이가 없는데 웃을 필요가 뭐 있지?” 그러니까 “아휴, 좀이 가물치라는 걸 이번에 꼭 모습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스님한테 이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기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자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속품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품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품(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서냉
- *오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견조기, 오주배개등 자매품다양)